

지역 의대생 대다수 유급 초읽기...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학기·학년 말’ 학사 처분 예정 대학병원, 진료전담교수 채용난 복지부 이달 전공의 추가모집 검토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로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역 의료체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 역시 불가피해진 만큼 의대 교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병원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난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의료시스템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13일 지역 대학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앞서 지난 7일과 8일 각각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대상자 등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 9,475명)의 42.6%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대 의대 재적 인원은 873명(의예과 389명·의학과 484명)으로 이중 재학생은 737명(의예과 359명·의학과 378명)이다.

현재 수업 참여율이 10% 미만에 그쳐 대다수 학생이 학기 말에 유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의대 역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대 재적 인원 878명(의예과 394명·의학과 484명) 가운데 재학생은 697명(262명·의학과 406명)이며, 수업 참여율이 10% 미만에 그쳐 학년 말에 600여명이 유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올해 제적 대상은 전남대, 조선대 모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트리플링과 관련해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각에서는 트리플링 발생 시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의대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 회장은 “현재로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큰 틀로 보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새 정부에서는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할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병원 역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진료 차질은 물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남대병원엔 전공의 정원 345명 중 10여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조선대병원엔 173명 중 6명에 그쳤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 의도 전남대병원에서는 정원 98명 중 9명(지난 1분기 기준)에 불과했다. 각 병원은 진료전담교수 등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나 모집 지원자가 드물어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검토하기로 해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빈 자리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업무 과부하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해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가 내려지면 트리플링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으로, 그 사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나주 고압 송전철탑 위에서 하얀이(E97)와 짝을 이뤄 4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는 수컷 황새 다루(E61)가 먹이를 주고 동지를 떠나자 어미 만큼 자라 이소할 시기가 된 새끼가 날갯짓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이 황새부부는 지난해 전남에서 53년 만에 동지를 틀고 새끼 3마리를 부화해 자연으로 돌아갔다. 김태규 기자

나주서 멸종위기 황새 자연번식 ‘포착’...동지 보호 시급

멸종위기 황새 새끼 4마리 확인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나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자연 번식에 성공해 동지를 틀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황새는 2021년과 2022년 충남 예산 황새공원 인근 야생 인공 동지 탐에서 각각 태어난 수컷 ‘다루(E61)’와 암컷 ‘하얀이(E97)’ 부부로 보인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다루·하얀이 부부는 지난해 53년만에 전남에서 첫 동지를 틀기도 했다.

지난해 나주에서 자연 번식에 성공해 3마리의 새끼를 키운 황새 부부는 올해 3월 나주 부덕동의 한 절탑 꼭대기에서 알을 품고 있다. 최근 부화한 새끼 4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겨울 철새로, 예로부터 ‘한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텃새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개체 수 감소를 겪으며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주요 서식지였던 마을 주변 습지의 감소와 훼손, 습지의 질 저하, 심각한 수질 오염,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한 먹이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은 황새는 국제적으로도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희귀 조류다.

황새는 보통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이동해 겨울을 보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주에서 황새의 자연 번식이 포착된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보기 드문 황새가 나주에서 자연 번식에 성공했지만, 동지를 틀 곳이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고압 절탑 위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문화유산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전남 학생들-환경전문가, 영산강 수질 개선 협력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멘토단이 영산강 수질 개선 활동에 힘을 모은다.

도교육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

다. 이번 협력은 지역 환경을 주제로 탐구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실천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산강 유역의 수질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는 102개 팀이 멘토로 선정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직원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탐구활동을 전개한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청,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회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16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직원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 △‘적극행정’ 집합연수 단독 개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환준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www.gjewelry.or.kr

1F - 주얼리 전시판매장, 주얼리 체험공간

2F - 공용장비실

3F - 교육실, 세미나실, 바이어 상담실, 운영사무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충정로 5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

광주광역시동구 창업지원센터

<p>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p> <p>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p>	<p>청년창업인턴사업</p> <p>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p>	<p>마을공방 운영사업</p> <p>공명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p>	<p>일자리 공유구매</p> <p>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p>
---------------------------------------------------------------------	---------------------------------------------------------------------------	---------------------------------------------------------------	----------------------------------------------------------------

사무실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공간! 최고 입지, 교통 편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 위치 : 지하철 1호선 농성역 4번 출구
- 임대면적 : 2층 1,075㎡ (325평), 4층 740㎡ (224평)
- 건축규모 : 6층
- 문의처 : 010-9624-3892, 062) 233-3999 내선(102)